

# 국난 극복 앞장선 호남 민초들... 의로운 정신 재조명

## 新 호남 義兵 이야기

<1> 프롤로그

광주일보가 46년만에 다시 호남 의병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외적의 침입으로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서 군대를 조직해 저항한 민간인이 의병이다. 광주일보(1952년 창간한 전남일보와 1960년 창간한 전남매일)가 1980년 11월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통제법 조치로 인해 광주일보로 통합 창간한)의 전신인 전남일보는 1975년 12월 1일부터 1977년 7월 21일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439회의 '구국의 백의선봉 그 위업을 기리는 대하연재 의병열전' (이하 의병열전)을 게재한 바 있다.

이 기획시리즈는 100여 차례의 현장 취재, 문헌 및 자료 수집, 후손 인터뷰 등을 통해 숨겨져 있던 호남 의병의 역사를 추적, 그 진실과 의의를 되살려냈다. 전국 의병의 60% 이상을 차지한 호남 의병이 왜 거병했는지, 그들이 바라고 이루려고 했던 뜻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고 그들의 안타깝지만 장렬한 최후를 그려내 전라도가 '의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 시리즈의 필자인 조동수 전 광주일보 주필(당시 정치부 차장)과 김동영 전 로케트전지 대표이사(당시 사회부 기자)는 1977년 제10회 한국기자상을 수상하고, 이후 강의를 통해 호남 의병을 전국에 알렸다. 장흥 고씨, 광산 김씨, 경주 김씨, 죽산 안씨 등의 종친회는 조상의 자랑스러운 업적을 일깨워준 고마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대학 등 학계와 독자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전남도는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23-3 일원(우선협상대상지)에 모두 480억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남도 의병 역사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박물관, 추모시설, 역사숲 등이 들어서는데 부지 면적만 36만3686㎡에 달한다. 남도 의병 역사공원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의병들의 구국 충훈을 기리고 정의로운 역사를 일깨운 남도민들의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남도 의병'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국난 극복에 앞장선 호남의병 중 3분의 2가 전남 출신으로 전남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붙인 명칭이다.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은 모든 계층이 공감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과 첨단전시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테마로 구성, 다양한 전시기술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복안이다.

전국 규모의 남도 의병 역사공원이 들어서면 남도의 평범한 사람들이 의병이 돼 국난 극복에 앞장선 의로운 정신을 드높이고 나라를 구한 남도민의 구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테마형 관광자원으로서 전남의 '블루투어'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이 공원 박물관에 들어설 의병 유물자료 수집에 나서 381점을 구입하고, 1점을 기증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남도 의병 공원이 조성되는 나주시는 2021년 6월 1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1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로 선정되기도 했다.

남도 의병에 초점을 맞춰 호남 의병의 역사적 가치와 현재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46년 전의 '의병 열전'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당시 정리된 에피소드들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고, 역사적인 현장들을 찾아 그 변화상을 점검하는 것도 이번 '신 의병열전'의 취지다. 46년

전국 의병 60% '호남 의병' 역사 추적  
1977년부터 439회 연재 '전국 반항'도 '남도 의병 역사공원·박물관' 추진  
'의향' 남도민 자긍심 높이는 계기로

전 의병열전에서는 임란 의병장 26명, 병자호란 의병장 10명, 한말 의병장 16명 등 모두 52명의 의병장을 심층적으로 다뤘으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밝혀진 의병은 모두 4200여 명이다. 또 이 시리즈에서는 강제병합을 앞둔 일제가 1906년부터 1909년까지 전남도내 의병 진압 과정을 기록한 '전남폭도사'를 최초로 공개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일제가 한 지역의 의병만을 다뤄 상세히 정리해줬다는 것 자체가 당시 남도 의병의 종대함과 그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내 반전주의자인 후카가와 무네토시(深川宗俊)가 첫 발굴한 이 자료는 1기(1906년 1월~1907년 12월), 2기(1908년), 3기(1909년)로 구분했으며, 1기에서는 최익현, 고광순, 기삼연 등이, 2기에서는 김태원 김용 형제, 3기에서는 전해산, 심남일, 안규홍 등이 주도했다고 적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의병장들에 대해 "애국지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쓰기도 했으며, 한 지역의 의병 관계 기록을 통사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라는 점이 특징이다.

의병열전은 호남만이 아니라 영남까지 찾아가 직접 현장을 취재하고, 후손들이 보존하고 있는 유품과 유적, 생가, 기념비 등을 살살이 뒤졌다. 또 후손들의 이야기를 들어 각 의병장의 숨겨진 에피소드를 찾아내고, 특히 83권에 이르는 문헌을 발굴해 한자를 번역,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고한 문헌은 임진왜란사, 한국사, 난중일기, 한국의 인맥, 독립운동사 1권 및 자료집, 호남절의록, 왕비열전, 매천야록, 제봉집(고경명), 유서석록(고경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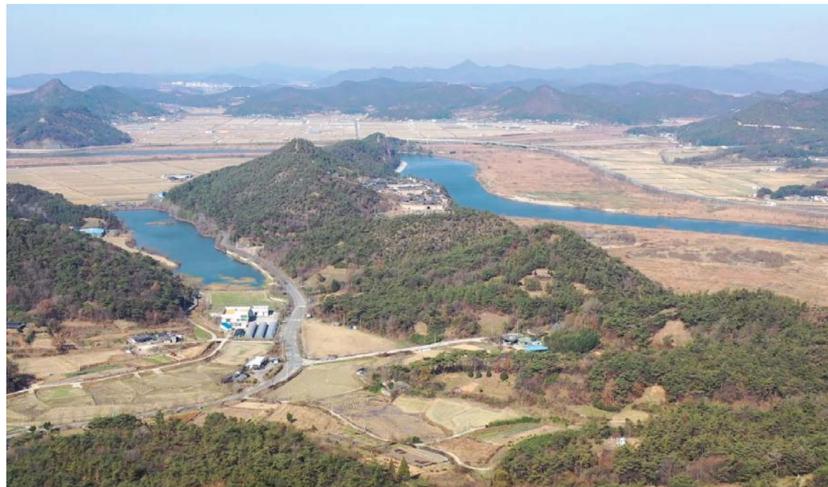


광주일보 전신인 전남일보가 지난 1975년 12월 1일부터 1977년 7월 21일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439회를 게재한 '구국의 백의선봉 그 위업을 기리는 대하연재 의병열전' (이하 의병열전)의 시작을 알리는 사고.

광주읍지, 전라남도지, 전라북도지, 백사집(이항복), 일휴당문집(최경회), 건재문집(김천일) 등이다.

조동수 광주일보 전 주필은 "이 시리즈의 서두에 역사가 망하는 것은 국가가 망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라고 적은 바 있다"며 "46년 전의 기사를 재조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이를 통해 남도 의병에 대한 지역민과 전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그 의미를 다시 살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해 7월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의 역점 시책사업인 '남도 의병 역사공원 조성 사업'의 대상지로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23-3 일원이 선정됐다. 도는 모두 480억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36만3686㎡의 부지에 남도 의병 관련 박물관, 추모시설, 역사숲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고

## 의병은 우리 민족의 국성(國性), 남도 의병 박물관이 다시 일깨울 것

의병이란 국가의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원 종군하는 민군(民軍)을 말하며, 민군 의병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우리 역사의 특징적 현상이다. 이민족(異民族)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 한반도의 고유한 역사를 가능케 한 주인공이 바로 의병이라 할 수 있다.

한말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신 백암 박은식 선생께서 "의병은 우리 민족이 지닌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인 장점요 국성(國性)이다"라고 하면서 "나라는 멸할 수 있어도 의병은 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일 것이다.

특히, 우리 호남지역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장계에 기록된 출신지를 알 수 있는 인물 1,000여명중에 절반이 넘는 500여명이 전라도 사람이다. 구한말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한일전쟁 직전인 1909년 교전 의병수 1만7,57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5%가 전라도 의병이었으며 (출처 한국독립운동사), 실제로 일제가 의병 대토벌 작전을 남쪽에서 주로 한 이유도 전라도 의병 때문이었다.

이렇듯 전라도민의 활발한 의병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남지역에는 이를 기리고 추모하는 대규모 기념시설이 없어 안타까움이 많았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 남도 의병박물관(역사공원) 사업이 태동되었다. 남도 의병 박물관은 의병활동이 한반도에서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면서도 많은 시군에서 열던 유치 경쟁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8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하여 나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남도 의병 박물관은 호남절의록에서 임진왜란 7년 전쟁을 버틴 의곡(義穀)의 길로 표현한 영산강변에 들어설 예정이다. 나주시역은 임진왜란 최초의 근왕의병인 김천일 장군과 정유재란 최후의 의병장 임환, 한말 호남의병의 창까지 의병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지역이다. 흔히 박물관하면 역사 속 옛날 이야기로 막연히 그 당시에는 그랬으나 보다, 또는 일부러 찾아가도 단편적인 사실과 영웅이야기가 많아 전체적인 시대 모습과 의미를 되짚어보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남도 의병박물관은 첫째, 인물 중심이 아닌 서사 중심의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특정 위인이나 영웅의 이야기가 아닌 이름없는 영웅들이 함께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보려 한다. 남이 아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이웃의 이야기처럼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주변의 영산강, 다야들, 영산테마파크 등과 연계해서 박물관 일대를 자연과 공생하는 정원속박물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남도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장소로 만들어 사계절 매력 넘치는 테마공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의병정신 계승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아이들과 가족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의병 역사를 한눈에 보고, 전국에서 활발히 펼쳐졌던 의병활동과 의의를 전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또한 의병정신의 계승과 관련해서 이 시대의 의로운 사회상과 의인들도 발굴해서 재조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우리도에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상반기에는 '모두가 모두를 기억하는 남도 의병 박물관(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유명건축가, 조경·콘텐츠 구성 작가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차별화된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통령은 "독립·호국·민주 영령들은 각자 시대가 요구하는 애국을 실천했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역동적인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냈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었으며,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던 평범한 이웃들이 우리의 오늘을 만든 애국 영령들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남도 의병 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의병사를 재조명하는 한편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해왔던 우리 겨레의 의로운 기상을 일깨우는 공간으로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

/김병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유아교육과	3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b>총 계</b>	<b>29</b>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www.kwangshin.ac.kr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1. 7(목) ~ 11(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